



23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제47회 전남도민체전 배구 나주-영광 경기. 나주의 김광현(왼쪽 위) 선수가 상대의 블로킹을 피해 스파이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순천 1위 다툼 치열

전남도민체전 이틀째

제47회 전남도민체전 이틀째 지난해 여수시에 종합우승을 남긴 순천시가 약진하며 1위 탈환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여수시도 밀리지 않는 경기를 펼쳐 치열한 1위 싸움을 예고했다.
순천시는 23일 고흥 팔영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남자예선에서 목포시를 2-0으로 제압했고, 씨름 남·여에서 장성군, 16강에서 장흥군을 누르고 8강에 오르는 등 고른 득점을 펼치며 1위 탈환을 위한 배수의 진을 쳤다.
이에 맞서 여수시도 탁구 남자예선에서 함평군을 3-0으로 제압하며 16강에 올랐고, 씨름에서는 신안군과 곡성군을 꺾고 8강에

진출하는 등 지난해 패자다운 경기력을 보였다. 또 여수시는 유도에서 순천시와 완도군을 제압하고 8강에 올랐고, 검도 남자부도 강진군과 완도군을 누르고 8강에 올랐다.
이번 대회 첫 메달의 주인공은 육상 포환 던지기에서 13m 05cm를 기록한 이정권(목포시)선수가 차지했고, 이날 경기가 종료된 사이클에서는 나주시가 1위, 강진군이 2위, 신안군이 3위를 기록했다.
골프는 장성군이 1위, 순천시가 2위, 보성군이 3위를 차지했다. 골프 남자개인전에서는 김현상(장성·75타)이 우승했으며 여자개인전에서는 홍진희(순천·78타)가 1위를 차지했다.
/고흥=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각중기자 gju@kwangju.co.kr

도민체전 달라졌네...

'우주항공도시 고흥'에서 펼쳐지고 있는 제47회 전남도민체전이 지난해 도민체전기간 중에 발생한 '살인사건'의 악몽을 벗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도민체전에서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사·도 선수단 경기 도중 잦은 시비가 사라져 성숙된 경기문화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에는 전남도체육회의 '자정운동'과 선수 참가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남도체육회는 선수단 간 시비의 구실을 제공했던 부정선수 차단을 위해 일반직장선수 자격을 건강보험증만으로 판단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직장인 참가자들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를 첨부하도록 심사를 강화했다. 또 가장 시비가 많았던 축구와 배구의 경우 도민체전 참가 선수 전원을 각 해당 협회 등록선수

일일히 확인 대조해 부정선수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다.
이외에 전남도체육회는 대회 전 사무국장 및 전무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체육인들의 품위유지와 고운말 쓰기 운동을 전개해 체육인들의 위상을 스스로 높이고 도를 했다.
이외에 도체육회 사무국 직원들은 지난 22일부터 도민체전이 끝나는 24일까지 대회기간 동안 손님접대에서 음주·가무를 하지 않고 업무에만 전념, 가맹 경기단체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있다.
서정복 사무처장은 "지난해 도민체전 기간중에 발생한 일을 하루 빨리 잊고 체육인들이 스스로 위상을 높이고 노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변화'를 통해 달라진 전남체육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타구 방향 못 잡고...펜스 플레이 미숙...악송구...

"KIA 타이거즈 보이지 않는 실책을 잡아라."
윤석민은 지난 22일 우리와의 경기에서 7이닝 6피안타 7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 하고도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 3실점 모두 자책점으로 기록됐지만 보이지 않는 실책은 시즌 3승을 노리던 윤석민을 울렸다.
4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우리의 정성훈이 외야 플라이를 쳤다. 공은 높게 뛴고 그대로 아웃되는 듯 했지만 공은 우익수 이종범을 비껴 떨어졌고 정성훈은 2루를 밟았다. 플라이가 높게 뜨면서 공이 조병 속에 묻혀버린 것이다.
'살마 또?'라는 탄성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KIA는 아쉬운 수비에 쉽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다.
지난 20일 한화전에서 선발로 나왔던 리마는 1회 1루수 최희섭의 악송구에 페이스를 잃고 2점을 내줬다. 2회에는 무사 1,2루의 위기에서 중견수 이용규의 부정확한 송구로 3루 주자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서 리마는 클락에게 3점 홈런을 맞고 강판됐고 팀은 3-7패. 리마는 이날 실책을 했던 최희섭과 저녁을 먹으며 마음을 다독였지만 다음날 2군으로 내려갔다.
전병두도 수비의 도움이 절실한 투수다. 선발로 나왔던 17일 LG와의 경기에서 권용관의 플라이를 쫓던 중견수 이용규가 멈춰서는 사이 공이 우익수와 중견수 사이

에 떨어져 2루타가 됐다. 기록상으로는 안타. 전병두는 2개의 안타를 더 허용하면서 3실점해 패전투수가 됐다.
앞선 12일 롯데전에서 전병두는 2회 1사에서 3루수 이현근이 평범한 땅볼을 놓친 후 페이스가 급격히 흔들렸다. 2개의 폭투까지 하며 4실점한 전병두는 2이닝만 겨우 채우고 강판당했다. 4-8패.
1회 3점을 뽑으며 기분 좋은 출발을 했던 13일 롯데와의 경기에도 수비의 악몽이 계속됐다. 2루수 김선빈이 가르시아의 땅볼 때 2루로 진투하는 주자를 태그 하지 못하면서 1사 1,2루가 됐다. 서재응은 이후 연속 안타로 2점을 내줬고, 설상가상 배터리 차일목과 호흡이 맞지

않아 포수 앞에 떨어진 땅볼이 내야안타가 됐다. 순식간에 4실점 하며 경기는 3-4로 끝났다.
불량 수비로 곤장 경기의 흐름이 넘어갔던 터라 팬들은 22일 정성훈의 플라이가 2루타가 되는 순간 긴장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윤석민은 4번타자 브룸바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송진만과 황재균을 땅볼과 삼진으로 처리해 위기를 넘겼다.
다음 위기는 넘지 못했다. 6회 이종범의 판단 미스로 타구 처리가 늦어지면서 1사 3루가 됐고 동점을 허용했다. 7회에는 좌익수 김원섭이 빗속에서 공을 놓치며 외야플라이가 또다시 2루타가 되면서 윤석민은 2-3으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다행히 팀은 김원섭의 3루타와 이종범의 빠른 발이 만든 상대 실책으로 4-3으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김원섭과 이종범은 '결자해지'로 팀 승리를 이끌었지만 윤석민은 눈앞에서 승리를 놓쳤다.
팀 타선이 제때 터지지 않으면서 마운드의 투수들은 작은 수비 실수에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팀 실책은 7개로 가장 적지만 보이지 않는 실책으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헌납하며 KIA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KIA중위권 도약을 위해 절실한 것이 바로 공·수의 안정된 균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우산 셋이 나란히 23일 제주크라운CC에서 개막된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 여자오픈 골프대회에 참가한 김하늘, 신지애, 임지나(이상 왼쪽부터)가 가랑비가 내리자 우산을 쓰고 세컨샷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신지애 OB "으악"

국내 공식 대회선 첫 티샷 실수 2오버 6위...김보배 1언더 선두

KLPGA 엠씨스퀘어컵 1R
미스샷이 거의 없는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국내 무대에서 처음으로 티샷 OB(아웃오브바운드)를 냈다.
신지애는 23일 제주 크라운골프장(파 72·6천300야드)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MBC 투어 엠씨스퀘어컵 크라운CC여자오픈 첫날 6번홀(파5)에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날린 볼이 페어웨이 오른쪽 OB 구역으로 사라져 더블보기를 찍어냈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공식 대회에서 OB는 단 세번 뿐이었고 티샷 OB는 지난 3월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 요코하마타이어 PRGR레이디스컵 최종 라운드에서 처음 경험했던 신지애는 국내에서 첫 티샷 OB를 내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대회 2연패와 시즌 세번째 우승, 그리고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목표로 출전한 신지애는 OB 한방 탓에 1라운드를 2오버파 74타로 마쳐 1언더파 71타를 친 선두 김보배(21)에 3타 뒤진 공동6위에 머물렀다.
신지애는 작년 같은 코스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1라운드를 4오버파 76타로 망쳐놓았지만 2, 3라운드에서 불같은 추격전을 펼친 끝에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6번홀 더블보기에 이어 8번홀(파3) 보기로 추락하던 신지애는 9번(파4), 10번홀(파5) 연속 버디에 이어 13번홀(파4)에서 1타를 줄여 기어코 이븐파를 만들어내며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16번홀(파3)과 17번홀(파4)에서 충분히 날을 수 있었던 퍼퍼트를 놓치면서 순위가 미끄러움을 뒀다. 특히 17번홀에서는 퍼퍼트가 홀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오는 불운을 겪었다. 18번홀(파5)에서는 2m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비껴갔다.
서울-김영주골프 여자오픈에서 3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던 김보배는 보기 다음에는 꼭 버디를 뽑아내는 근성 넘치는 플레이를 펼쳐 생애 첫 우승에 도전장을 냈다. 김보배는 버디를 다섯개나 잡아냈지만 보기 두 개를 곁들였다.
새내기 오재아(19)가 이븐파 72타를 쳐 2위를 달렸고 김보배(22·던롭스릭스), 정미희(19), 김소영(21) 등이 1오버파 73타로 공동3위 그룹에 포진했다.
동반 라운드를 펼친 도하 아시안게임 단체인 금메달리스트 신인 3인방 가운데 유소연(18·하이마트)가 2오버파 74타를 때려 75타를 친 정재은(19·하나금융)과 76타에 그친 최혜용(18·LIG)에 한발 앞서나갔다.

레이크힐스 순천CC 내달 1일 오픈
레이크힐스골프&리조트그룹은 오는 5월1일 레이크힐스 순천CC를 정식 오픈한다.
레이크힐스 순천CC는 지난해 11월 퍼블릭코스(18홀)를 개장한 데 이어 이날 회원제 코스 18홀 등 36홀을 정식 개장한다. 이번 순천CC 오픈으로 레이크힐스골프&리조트그룹은 국내 5곳의 골프장을 보유하게 됐다.
순천CC는 송광사와 선암사가 있는 조계산 자락에 들어서며, 산수화를 연상케하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한다. 여수공항, 순천공항, KTX광주역 등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성도 뛰어나
다. 회원은 월 4회 주말 부킹이 가능하며, 용인, 안성, 제주, 함안 등 국내 골프장 5곳과 골프텔, 호텔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중국, 태국, 하와이 등 해외의 제휴 골프장에서도 회원 대우를 받는다. 현재 2차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61-729-8867.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골프·연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록펠러 회원권
최저 '록펠러 회원권'비, 상공회의소에서 합리적 평가를 받으며, 오아레브로티움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제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점소가 되었습니다.
상담전화 (062)351-0095